

2004년 강의법 과정에 대한 평가와 분석

민혜리* · 김훈호**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2004년부터 <강사를 위한 강의법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연속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강의법 과정>은 강의를 진행하는 데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코스 워크의 형태로 제공하여, 대학에서 처음 강의를 시작하는 교수자들의 원활한 수업 진행을 돋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2004년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워크숍에 참가한 강사들을 대상으로 매회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프로그램 개선과 향후 프로그램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는 문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참가자 배경 사항

참가자를 성별에 따라 구분해 보면 여성이 57명, 37명으로 주로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고 말할 수 있으며, 연령에 따라 구분하면 20대가 13명, 30대가 58명, 40대가 15명, 50대가 8명 이었다. 특히 30대가 전체 참가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강의를 새로 시작하거나 경력이 그리 많지 않은 강사들의 <강의법 과정>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들의 요

구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년도의 <강의법 과정>을 준비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가자들을 신분에 따라 구분하면, 박사과정생이 30명, 시간강사가 29명, 연구원이 12명, 그리고 석사과정을 포함한 기타가 16명이었으며, 현직 교수도 10명이 참여하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박사과정생과 시간강사의 비율은 전체의 7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지 학위에 따른 구분에서는 박사과정생이 28명, 박사과정 수료생이 18명, 박사학위 소지자가 23명, 석사가 12명, 그리고 기타가 5명이였다.

워크숍 참가자들에게 현재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서울대학교에서 강의 중이다(19명)” “서울대학교 이외의 대학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36명)” “강의하고 있지 않다(33명)” 등으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참가자들(63%)이 현재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참가자들의 절반 가량은 서울대 외의 타 대학에서 강의를 진행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강의 경력이 없는 사람도 약 30%에 가까웠다.

그리고 2004년 <강의법 과정>을 수강한 사람들

*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지원부 선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지원부 조교

중 이전에 <강의법 과정>과 같은 강의법 강좌를 수강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약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구 분 | 응답수 | 비율 |
|---------------|-----|----|
| 강의법 워크숍 참가 경험 | 있다 | 27 |
| | 없다 | 63 |

반면, 전체의 70% 정도는 이전에 강의법 관련 강좌를 수강해 본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는데, 이들이 주로 들고 있는 이유로는 <강의법 과정>의 일시나 장소 등이 맞지 않아서'와 '강의법 관련 교육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대와 중앙전산원 홈페이지, 플랜 카드,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그 효과는 매우 미약한 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다 많은 홍보 노력과 강의법 과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강의자로서 느끼는 어려움과 참여 동기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강의 준비를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내용을 흥미 있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효과적인 교수법(30명)” “학생들의 수준과 학생 반응을 파악하고 조정하기(22명)” “웹 및 교육 매체와 시각 자료의 효율적 이용 방법(22명)” “학생 평가 방법(11명)” 등의 순서로 답을 하였다. 즉, 강사가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강의 준비나 학생 평가이기 보다 학

| 강사로서 느끼는 어려움 | 인원 | 비율 |
|--------------------------------|----|-----|
| 강의계획서 작성 포함한 강의 준비하기 | 3 | 3% |
| 학생들의 수준과 학생 반응을 파악하고 조정하기 | 22 | 23% |
| 수업 시간 중 토론을 활성화하고, 소집단 활동을 이끌기 | 10 | 10% |
| 학생 평가 방법 | 11 | 11% |
| 내용을 흥미 있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효과적인 교수법 | 30 | 30% |
| 웹 및 교육 매체와 시각 자료의 효율적 이용 방법 | 22 | 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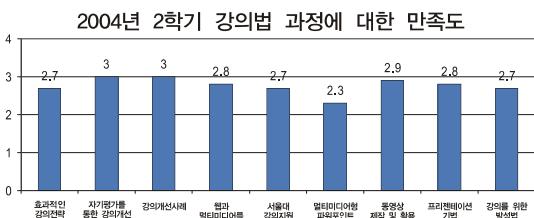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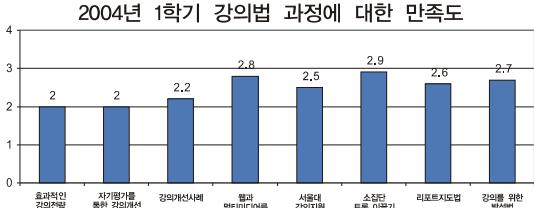
생들과의 소통이나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기법 등임을 알 수 있으며, 이후의 <강의법 과정>을 편성하는 데 이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다음 그래프는 만족도를 ‘매우 만족’ ‘만족’ ‘보통’으로 구분하여 각각 3, 2, 1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강의법 과정에 대한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학기보다 2학기의 <강의법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1학기의 경우 ‘소집단 토론 이끌기’와 ‘웹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강의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반면, ‘효과적인 강의의 전략’과 ‘자기평가를 통한 강의 개선’, 그리고 ‘강의 개선 사례’ 등은 대체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학기 <강의법 과정>에서는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져, 1학기 <강의법 과정>에서 최하의 만족도를 나타냈던 강좌들의 경우 ‘매우 만족’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

| 교육 프로그램 |



외에도 ‘웹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강의 운영’ ‘강의를 위한 발성법’ 등은 여전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학기 과정에서 새롭게 개설된 ‘동영상 제작 및 활용’과 ‘프레젠테이션 기법’은 참여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4. 평가 및 향후 요구

설문에 응해 준 참가자들 대부분이 2004년 <강의법 과정>에 대해 매우 만족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개선 사항도 여러 가지를 제안하고 있는데, 앞서 지적하였듯이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강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들이 더욱 많이 제시되었으면 좋겠고, 여러 수준의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자신의 수준에 맞는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강의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진행하기를 바라는 프로그램으로는 “수업 내용

| 향후 요구 프로그램 | 인원 | 비율 |
|--------------------------------|----|-----|
| 강의계획서 작성 포함한 강의 준비하기 | 10 | 6% |
| 학생들의 수준과 학생 반응을 파악하고 조정하는 방법 | 34 | 21% |
| 수업 시간 중 토론을 활성화하고, 소집단 활동을 이끌기 | 35 | 21% |
| 학생 평가 방법 | 11 | 7% |
| 수업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 | 45 | 27% |
| 웹 및 교육 매체와 시각 자료의 효율적 이용 방법 | 29 | 18% |

* 중복 선택

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45명)”, “수업 시간 중 토론을 활성화하고 소집단 활동을 이끌기(35명)”, “학생들의 수준과 학생 반응을 파악하고 조정하는 방법(34명)” 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강의법 과정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은 실제 강의 장면에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이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기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웹 및 교육 매체와 시각 자료의 효율적 이용 방법(29명)”, “학생 평가 방법(11명)”, “강의계획서 작성 포함한 강의 준비하기(10명)” 등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